

교회소식

- 다음 주일(7월5일) 출석은 기찬 구역과 소망/은혜 구역입니다.
주일 아침 예배당을 정리/소독하는 일에 자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들께 알려주시고 10:30까지 와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성경 7/8월호 받아가십시오. 받으신 분과 전달해드릴 분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섬기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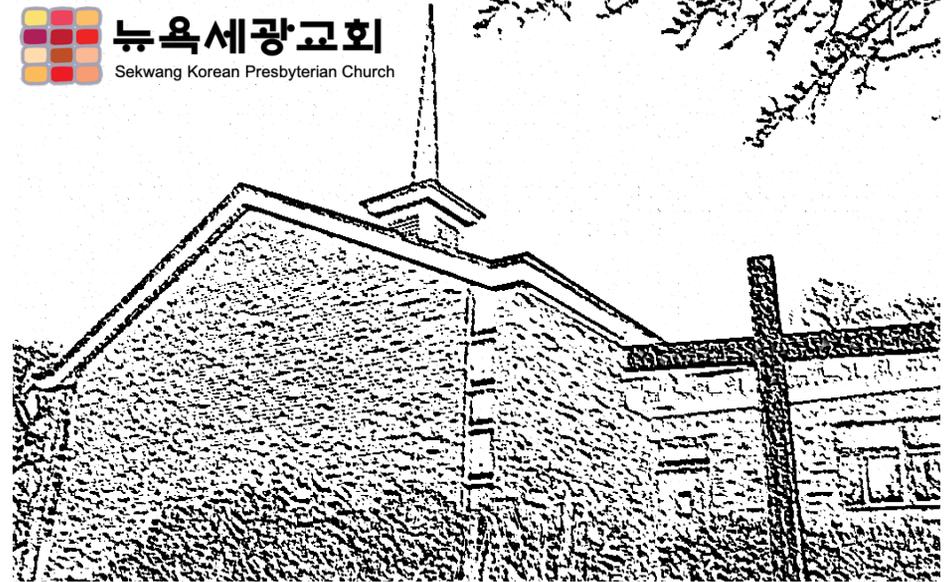
다음 주 출석: 기찬 구역, 소망/은혜 구역
다음 주 대표기도: 최경자 집사 (시 45:10-17)
이번 주 친교:
다음 주 친교:

기도

“예배와 교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은혜를 범상히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환자들과 가족들, 의료진, 연구진, 정책 수립과 집행자들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활동 제한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제20권 25호

2020년 6월 28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예 배 안 내		주 일 학 교	
English Service	12pm, Zoom	유치부	10am, Zoom
주일 예배	11am, 본당/YouTube	유년부	10am, Zoom
새벽기도 (월-토)	6am, YouTube	중·고등부	11am, Zoom

- YouTube: <https://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 Zoom Id: 882 8752 6478

성경공부 및 모임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Zoom
구역 모임 TBA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고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주일 예배

<오전11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예배를 여는 기도 Worship & Praise	인도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함께
찬송 Hymn	80장(통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There is no Name so Sweet
대표기도 Prayer	시편 89:1-4, 15-18 임미숙 집사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 Word of God	마태복음 6:19-34 Matthew 6:19-34
설교 Sermon	“네 눈이 성하면” 이민영 목사
인사 및 광고 Greetings & Announcements	인도자
찬송 Hymn	435장(통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My Everlasting Portion
축도 Benediction	이민영 목사

English Service

<12p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	“This is My Desire” Together
Call to Worship	Together
Worship & Praise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Together
Apostle's Creed	Together
Offering Prayer	Leader
Word of God	Luke 6:27-36 Leader
Sermon	“And What of Our Enemies?” Pastor Kim
Reflection / Prayer	Together
Benediction	Pastor Kim

지난 주 주일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마태복음 6:5-15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고아와 과부들을 도우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갚으시며, 금식하는 자를 윤택하게, 정결하게 하십니다. 천국이 임해서, 아버지께서 계셔서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아버지와 교통하게 하는 통로요, 아버지를 아는 사람, 자녀답게 되어가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의 뜻과 땅의 필요가 만나게 되는 곳이 기도의 골방입니다.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면 사람 앞에 보이려 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갚으시는 것을 알면 혹시나 하는 두려운 마음에 중언부언하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말하는 만큼 들립니다. 구한 만큼 기다립니다. 기도한 만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다스림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니다.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로 인해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생명과 고향이 하늘에 있는 것을 알기에 하늘의 영광과 통치와 뜻이 여기에서 이뤄지는 것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예수님을 닮은 새사람을 날마다 입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무슨 거룩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려드립니다. 일용할 양식과 화평한 관계와 시험을 이길 힘을 구합니다. 날마다 만나는 일입니다. 날마다 넘어지기 쉬운 일들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익숙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양식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를 주고 받으며,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시험을 이기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누구나 겪는 일상적인 일들이, 세상 누구나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일상의 일들이,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발등상이 됩니다.

들으시는 아버지께 말하고, 아시는 아버지께 알려드리고, 갚으시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앞에 나 자신으로 서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특권이고 능력이고 비결입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그 앞에서(골방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웁시다. 하늘에서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예비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말씀과 기도로 배워갑니다. 말하는 시간 만큼 그를 목상하고 뜻을 구하며 기다립니다. 구체적인 필요들 - 먹고 사귀고 사는 일 - 을 “세속적인” 것들이라고 기도하지 않거나, 자기 힘으로도 충분하다고 교만하거나, 욕심과 염려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려 구합니다.